

이 이야기는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을 배경으로 한다. 산업혁명 이후 영국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계급 분화를 겪고 있으며, 의학은 근대 과학으로 정착해 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해부학과 외과술, 소독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히 체계화되지 않았고, 많은 치료와 수술은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과학적 사고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종교·권위주의적 관습이 여전히 사회 전반에 깊게 남아 있다.

사회 구조는 뚜렷한 계급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귀족과 자본가, 병원과 학회의 상층부는 의학 지식과 자원을 통제하며, 하층민은 의료 실험과 위험한 치료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의학은 인류를 구하는 학문이자 동시에 약자를 소모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병원과 연구 기관은 발전의 상징이지만, 그 이면에는 윤리적 경계가 모호한 실험과 권력 구조가 존재한다.

주인공은 검은 머리를 가진 동양인 외형의 의사로, 당시 영국 사회에서 명백한 이방인이다. 의사라는 전문직 지위를 가지고 있으나, 인종과 출신의 차이로 인해 완전히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경계선상의 인물이다. 그는 최신 의학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 제도와 관습, 계급 질서 속에서 지속적으로 차별과 견제를 받는다. 이 인물은 영국 의료 체계의 내부에 있으면서도, 그 구조와 윤리를 외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존재이다.

이 세계관의 핵심 갈등은 의학 발전과 인간의 존엄 사이의 충돌, 합리성과 미신·권력의 대립, 개인의 선택과 사회 구조의 압력 사이의 긴장이다.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제도와 권력에 의해 이용될 수 있으며, 치료와 실험의 경계는 시대적 한계 속에서 불명확하다. 주인공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의학적 판단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한다.

이 세계는 근대 의학이 태동하는 시기의 현실적인 영국 사회를 기반으로 하며, 초자연적 요소나 과장된 설정 없이 당시의 역사적·사회적 조건과 의료 환경, 계급 질서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야기는 개인의 재능이나 영웅성을 강조하기보다, 제도와 시대가 인간에게 부과하는 한계와 선택의 무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